

# 당대 동물시 유형 연구

서성\*

## <目 次>

1. 머리글
2. 동물시의 유형
  - (1) 비홍 대상시
  - (2) 형상 묘사시
  - (3) 생명 애호시
  - (4) 동물 교감시
3. 마무리글

## 1. 머리글

중국 고전시에서 동물은 친숙한 제재로 곧잘 등장하지만, 이를 독립된 제재로 취급하여 그 기원과 발전과 특성을 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록 공자가 《시경》을 배우면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sup>1)</sup>고 하여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중시하였지만, 문학 연구에서 시의 하위 장르에 ‘동물시’를 두고 이의 발생, 발전, 특징을 논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는 《시경》 시대에 동물을 하나의 비홍의 대상으로 보았고, 이후에도 이러한 시적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된 본격적인 장르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진 시기의 시가에서 동물은 독립적인 음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끌어 내거나 기탁하는 대상으로 등장하였고<sup>2)</sup>, 한부(漢賦)에서 동물부(動物

\*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1) 楊伯峻, 《論語集注》〈陽貨〉(中華書局, 1980): “多識於鳥獸草木之名.”

2) 이는 《시경》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초사》에서도 발견되는데, 《초사》에 대해 王逸은 “좋은 새와 향초로 진실되고 곧바른 사람을 의미하였으며, 나쁜 짐승과 악취 나는 물건으로 아부하고 참언하는 사람을 비유하였다.”(善鳥香草以配忠貞, 惡禽臭物比譏佞.)고 하였다. 朱熹, 《楚辭集注》(江蘇廣陵古籍出版社, 1990) 참조.

賦)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형상과 특징을 묘사하였으며<sup>3)</sup>, 위진남북조의 지괴 등에서 동물과의 특별한 교감을 강조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sup>4)</sup> 동물을 지식의 대상이나 비유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대상으로 만나고 기록한 경험은 당대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제량 시대부터 당대 말기까지의 대표작을 모은 《문원영화》(文苑英華)에서 동물 관련 시는 권328부터 권330권까지 총 3권으로 모아져 있다. 여기에는 鳳, 鶴, 鷹, 鳥, 鵠, 雁, 鷓, 百舌, 鸚鵡, 鴛鴦, 鸕鶿, 孔雀, 鷺鷥, 鷄雉, 鷓鴣, 鳧, 鷗, 鵝鴨, 燕, 雀, 子鳩, 雜題, 蝶, 蜂, 螢, 蟬, 促織, 蜘蛛, 馬, 猿, 獺, 魚, 龜 등의 항목으로 총 178수가 실려 있다. 작품이 많이 선별된 순으로 보면 馬 33수, 鶴 27수, 蟬 22수, 雁 20수, 燕 17수 등이다.<sup>5)</sup> 물론 동물시는 이밖에도 악부(樂府) 등 다른 항목에도 등장하므로 훨씬 많다. 《전당시》(全唐詩)에 비해 《문원영화》는 선집이므로 그 작품수가 적다는 점, 편찬된 송대 초기의 관점이 반영된 점, 더불어 제목에 동물이 표시된 작품 위주라는 점 등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이를 통해 동물시의 대략적인 범위와 내용을 간략하게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의 분류시집에서도 볼 수 있다.<sup>6)</sup>

3) 동물부의 기원은 순자(荀子)의 〈잠부〉(蠶賦)로 볼 수 있다. 한대의 동물부는 현재 잔편(殘篇)과 존목(存目)을 포함하여 13편을 찾을 수 있다. 공장(孔臧)의 〈요충부〉(蓼蟲賦), 반소(班昭)의 〈대작부〉(大雀賦)와 〈선부〉(蟬賦), 최기(崔琦)의 〈백곡부〉(白鵠賦), 유완(劉琬)의 〈마부〉(馬賦)와 〈신룡부〉(神龍賦), 장형(張衡)의 〈홍부〉(鴻賦), 왕연수(王延壽)의 〈왕손부〉(王孫賦), 마옹의 〈용호부〉(龍虎賦), 채옹(蔡邕)의 〈선부〉(蟬賦), 조일(趙壹)의 〈궁조부〉(窮鳥賦), 예형(禰衡)의 〈앵무부〉(鸚鵡賦) 등이 있다. 위진남북조 들어서 동물부는 더욱 많아져 107편에 이른다. 요국동(廖國棟)의 《魏晉詠物賦研究》(文史哲出版社, 1990) 등 참조. 1990년대에 발굴된, 서한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신오부〉(神鳥賦)를 더하면 한대의 동물부는 모두 14편이다.

4) 동물과 관련된 우화는 선진 시대부터 등장하였다. 《장자》에서는 사마귀를 노리는 매미의 우화인 '당랑포선'으로 철학적 의미를 전달하려 하였고, 《전국책》에서는 소대가 '홀방지쟁' 이야기로 국가 간의 관계를 비유하는 등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우화의 형식 속에 동물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속석(束皙)의 《발몽기》(發蒙記)에서 시작하여 《수신후기》(搜神後記)에 정착한 '우렁각시' 이야기 유형과 같이 이야기 자체의 신이함에 초점을 둔 기이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였다.

5) 李昉 等編, 《文苑英華》(中華書局, 1966) 권328-권330권 참조.

6) 예컨대 潘百齊 編, 《全唐詩精華分類感賞集成》(河海大學出版社, 1989)에서는 《全唐詩》를 전체 55부(部)로 분류한 가운데 동물부(動物部)를 하나 두고, 그 아래에 금조(禽鳥), 수축(獸

본고에서는 오늘날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통합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대상으로 보는 생태시학의 발흥에 따라 고전시를 새로운 각도로 보는 시도로 동물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때문에 동물을 제재로 하였다는 영물시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인은 동물을 어떻게 보았으며 동물과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필자는 당시 속의 동물 관련시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분류가 현대적 관점을 수용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물시'라는 소장르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물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음도 발견하였다. 이들 유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표현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각 유형은 각기 다른 발전 궤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분류와 이해는 생태시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가 되리라 본다.

동물시의 유형은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범주를 설정하는데 있어 먼저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 종류를 고려하였고, 다음으로 이러한 범주가 얼마간 서로 대응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동물 자체에 주의한 시와 인간과의 관계에 중심을 둔 시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동물 자체에 주의한 시는 다시 동물의 형상과 습성을 노래한 시와 이를 비유적으로 이용한 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형상 묘사시'(제2 유형)라 부르고, 후자를 '비흥 대상시'(제1 유형)라 명명하였다. 순서로 보아 전자가 먼저 나올 수 있지만 중국문학사에서는 《시경》 이래 비흥의 전통이 강한 이유로 '비흥 대상시'가 주도적인 시가 되었으므로 이를 제1 유형이라 보았다. 인간과의 관계에 중심을 둔 동물시는 다시 동물의 생명에 관심을 나타낸 시와 사람과의 친화 또는 감응을 노래한 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생명 애호시'(제3 유형)라 부르고, 후자는 '동물 교감시'(제4 유형)라 이름지었다.

## 2. 동물시의 유형

### (1) 비흥 대상시

畜). 인개(鱗介), 충시(蟲豕) 등 4개 문(門)을 두었다.

비흥 대상시는 동물을 비흥의 대상으로 삼는 시를 가리킨다. 동물을 시의 비흥으로 삼는 전통은 오래되었다. 《시경》의 첫 번째 시 〈관雉〉(關雉)를 보면, 첫머리에서 황하의 모래톱에서 우는 물수리를 등장시켜, 이로부터 요조숙녀를 찾는 군자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흥’(興)의 기법은 주희(朱熹)가 정의한 것처럼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하여 노래하고자 하는 말을 끌어낸다.”<sup>7)</sup> 학자들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에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 이러한 ‘흥’이 원시적인 의미 맥락이 있음을 찾기도 하였다. 예컨대 조류로 흥을 일으키는 시는 일반적으로 조상이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많고, 어류로 흥을 일으키는 시는 애정과 혼인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sup>8)</sup> 물론 이러한 흥기는 직각적이고 자연적이며 무의식적이어서 유형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흥이 후대에는 점점 이성적이고 의식적으로 변하면서 풍부한 감성과 비약은 약화되었지만 대신 시의 해독과 의미 전달은 더 분명해졌다. 당대에도 이러한 비흥 대상시는 여전히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진자양(陳子昂)의 〈감우시〉(感遇詩) 제11수를 보자.

翡翠巢南海,	남해에 둥지를 튼 물총새
雄雌珠樹林.	암 수컷이 아름다운 숲에서 노니는구나
何知美人意,	어찌 알았으랴, 미인의 뜻이
驕愛比黃金?	너를 황금같이 아끼고 사랑했음을
殺身炎洲裏,	무더운 염주(炎洲)에서 잡혀 죽어
委羽玉堂陰.	옥당 뒤편에 깃털이 쌓였어라
旖旎光首飾,	미인의 머리에 한들거리며 화려하게 장식되고
葳蕤爛錦衾.	비단 이불에 울긋불긋 치장되었으니
豈不在遐遠?	어찌 멀리 숨지 않았으랴만
虞羅忽見尋.	사냥꾼에게 갑자기 발각되었네
多材信爲累,	쓸모 많으면 진실로 우환이 되나니
歎息此珍禽.	진귀한 이 새를 깊이 탄식하노라

(《全唐詩》 권83)

7) 朱熹, 《詩集傳》(中華書局, 1958): “興者, 先言他物以引起所詠之詞也.”

8) 趙沛霖, 《興的源起》(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이 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물총새가 오히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갑자기 화를 입을 비유로 들어, 재능이 있으면서 오히려 해를 입는 불합리한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장자》 〈산목〉(山木)에 나오는 “곧은 나무가 먼저 베이고, 맛있는 우물이 먼저 마른다”(直木先伐, 甘井先竭.)는 생각과 유사하며, 같은 책의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 도끼에 잘린 것은 바로 쓰임이 있는 재료의 우환이다”(故未終其天年, 而中道之夭於斧斤, 此材之患也.)는 생각을 시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진자앙이 지은 〈주미부〉(塵尾賦)에서 “이 신선 마을의 작은 짐승이 무엇을 가졌기에 재앙을 만났나? … 그 꼬리가 쓸모 있기에 이 집에서 죽지 않았겠는가”(此仙都之微獸, 因何負而罹殃? … 豈不以斯尾之有用, 而殺身於此堂.)라고 한 대목과도 일치한다. 진자앙이 무유의(武攸宜)로부터 살해당한 것을 보면 그의 이러한 우려는 일정한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동물로 등장하는 물총새는 시인이 직접 보았다고 하기보다는 문화적 체계, 즉 지식 속에 가져왔다. 왜냐하면 제5구의 염주는 《십주기》(十洲記)에 의하면 “염주는 남해 가운데 있는데, 사방 둘레가 이천 리이다”(炎洲在南海中, 地方二千里.)고 되어 있으며, 제2구의 주수 역시 《산해경》〈해외남경〉(海外南經)에 “세 그루 주수(珠樹)가 염화(厭火)의 북쪽에 있는데 적수(赤水) 위에서 자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신화의 공간을 끌어들이와 현실의 고대광실 속의 일을 비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때의 물총새는 시인의 〈주미부〉(塵尾賦)에 나오는 사슴과 같이, 고귀하고 드물면서도 사람들이 값지게 여기는 걸 가진 동물이면 되는 것이다. 물총새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데 쓰이기 좋게 문화적으로 준비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장구령(張九齡)의 〈감우〉(感遇) 제4수에서도 볼 수 있다. “거대한 홍곡이 바다에서 날아오며, 연못가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는구나. 옆으로 흘깃 바라보니 물총새 한 쌍이, 옥으로 만든 세 그루 나무에 등지 틀고 있어라. 높디높은 진귀한 나무의 꼭대기라고, 어찌 탄환의 두려움이 없으리오?”(孤鴻海上來, 池潢不敢顧. 側見雙翠鳥, 巢在三珠樹. 矯矯珍木巔, 得無金丸懼?) 이 시는 진자앙의 작

품과 같은 제재를 사용했지만, 거대한 홍곡을 등장시켜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그림으로써 물총새와 대비시키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제3구에 나오는 한 쌍의 물총새는 자신을 참취한 이림보(李林甫)와 우선객(牛仙客)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sup>9)</sup> 이렇게 본다면 동물을 빌려 자신의 뜻이나 의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미 문화적인 행위로, 현실 속에서 동물과 관련된 경험은 모두 '비유적 공간' 속에서 문화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동물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보다는 문화 속에 축적된 의미가 중요하게 된다.

한산(寒山)의 〈깊은 숲에 사는 사슴은〉(鹿生深林中)도 사슴을 빌어 매인 바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삶을 그려내었다.

鹿生深林中,	깊은 숲에 사는 사슴은
飲水而食草.	물마시고 또 풀을 먹지
伸腳樹下眠.	발을 뻗고 나무아래 잠 자고
可憐無煩惱.	즐거워하며 번뇌가 없다네
繫之在華堂.	화려한 대청에 묶여 산다면
餽餼極肥好.	먹는 음식이 지극히 기름지고 좋다지만
終日不肯嘗.	하루 종일 맛보려 하지도 않으니
形容轉枯槁.	그 모습 점점 말라간다네

(《全唐詩》 권806)

사실 이러한 비홍은 중국 고전 문학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장자》에 나오는 ‘꼬리를 끄는 거북’이란 뜻의 ‘예미귀’(曳尾龜)의 비유가 그러하다. 장자가 초나라 왕이 출사를 권하며 대부를 보내자 이를 거절하며 거북을 비유하여 말하였다. “거북이 죽어서 뼈를 남기고 고귀하게 되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바라겠는가?”<sup>10)</sup> 남조 양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이 양 무제에게 준 두 마리의 소 그림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무제가 여러 번 궁중으로 불렀으나 도홍경은 가지 않고 대신 그림 한 장을 그려 보냈다. 거기에는 물가에

9) 王堯衢, 《唐詩合解箋注》(河北大學出版社, 2000): “雙翠鳥巢於珠數, 比小人踞美位, 指李林甫、牛仙客也。”

10) 王叔岷, 《莊子校詮》〈秋水〉(中華書局, 2007): “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제멋대로 노는 소 한 마리와 금 굴레를 쓴 채 고삐에 매여 채찍에 내달리는 소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무제가 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할 줄 모르는 것이 없으면서도 꼬리를 끄는 거북이 되려고 하니 어찌 오게 할 수 있겠는가?”<sup>11)</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적 언어로써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러한 비유는 오래 전부터 문화 코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슴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유가 위응물(韋應物)의 <술원록> (述園鹿)과 <산지기가 잡은 새끼 사슴> (虞獲子鹿), 소영사(蕭穎士)의 <위 사업의 방문에 우러러 답하며> (仰答韋司業垂訪) 제1수 등에 보인다.<sup>12)</sup>

이러한 비유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할 때이다. 백거이의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많은데 <진길료> (秦吉了)도 그중 하나이다.

秦吉了,	진길료
出南中,	남중(南中)에서 왔으니
彩毛青黑花頸紅.	암청색 털빛에 목덜미가 붉어라
耳聰心慧舌端巧,	귀는 밝고 마음은 지혜롭고 혀를 잘 굴러
鳥語人言無不通.	새 소리며 사람 말이며 못 하는 게 없어라
昨日長爪鶯,	어제는 발톱 긴 솔개
今朝大鶻烏,	오늘은 부리 큰 까마귀
鶯搯乳燕一窠覆,	솔개는 새끼들이 모여 있는 제비 둥지를 치고
烏啄母鷄雙眼枯.	까마귀는 어미닭의 두 눈알을 쪼았지
鷄號墮地燕驚去,	닭이 울고 땅에 떨어진 제비가 놀라 달아나니
然後拾卵攫其雛.	알을 줍고 새끼들을 채어 갔지
豈無鵬與鸚,	어찌 수리와 물수리가 없으랴만
嗉中食飽不肯搏.	모이주머니에 먹이가 많으니 막으려 하지 않았지
亦有鸞鶴群,	게다가 난새와 학의 무리도 있지만
閑立高巖如不聞.	한가히 서 있다가 못본 척 높이 날아가버렸지
秦吉了,	진길료여
人云爾是能言鳥,	사람들은 네가 말을 할 수 있다는데
豈不見鷄燕之冤苦?	어찌하여 닭과 제비의 억울함을 보지 못하는가?

11) 李延壽, 《南史》 <隱逸> (中華書局, 1997) : “後屢加禮聘, 並不出, 唯畫作兩牛, 一牛散放水草之間, 一牛著金籠頭, 有人執繩, 以杖驅之. 武帝笑曰: ‘此人無所不作, 欲數曳尾之龜, 豈有可致之理.’”  
 12) 項楚, 《寒山詩注》 (中華書局, 2000) 참조.

吾聞鳳凰百鳥主, 내 듣기로 봉황은 새들의 왕인데  
 爾竟不爲 結局 너는  
 鳳凰之前致一言, 봉황 앞에 나아가 말 한 마디도 못하고  
 安多噪噪閑言語! 어찌하여 한가한 말들만 지지배배 떠드는가!

(《全唐詩》 권427)

위 시는 여러 새들로 조정의 여러 직책의 사람을 비유하여 정치적 난맥을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솔개와 까마귀는 난폭하게 착취를 일삼는 세력가를 말하고, 수리와 물수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난새와 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지식인을 말하고, 제비와 닭은 힘없는 백성을 비유하였다. 특히 진길료(구관조)는 간의대부, 보궐, 습유 등 간관(諫官)을 비유하였는데, 억울한 백성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한담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였다. 백거이의 〈큰 부리 까마귀에 화답하며〉(和大鸛鳥), 〈까마귀의 밤 울음소리〉(慈烏夜啼), 〈학을 생각함〉(感鶴) 등도 이러한 계열의 작품이다.

만당 시기 조업(曹鄴)의 〈관아 창고의 쥐〉(官倉鼠)도 같은 계열의 시로 유명하다.

官倉老鼠大如斗, 관아 창고의 쥐는 뒷박만큼 커  
 見人開倉亦不走, 사람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는구나  
 健兒無糧百姓飢, 병사들도 군량 없고 백성들도 굶주리는데  
 誰遣朝朝入君口, 그 누가 그대 입으로 아침마다 실어가나

(《全唐詩》 권592)

조업은 어려서부터 백성을 동정하는 시가 많고, 시풍도 민간의 구어를 채용하여 질박하다. 제1구에서는 쥐의 모습이 거대함을 그리고, 제2구에서는 쥐의 대담함을 그렸다. 제3구에서는 필세를 전환시켜 사람들이 굶는 상황을 서술하고, 제4구에서는 반문하는 어조로 불합리한 현상을 깨우치고 있다. 특히 ‘군’(君)자를 써서 쥐와 동시에 군주를 암시하였다.

비홍 대상시는 동물을 비홍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동물의 외양과 습성을 관찰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동물이 인문적인 공간 속에 들어와 문화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중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시에 있어서는 산문에서의 우언의 방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고 형상성 있게 인식하고 표현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전통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동물을 유형적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때문에 동물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기록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 (2) 형상 묘사시

형상 묘사시는 동물의 모습이나 습성을 묘사한 시를 가리킨다.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동물에 대한 신선한 인상, 활발한 동작에 대한 경탄, 습성과 특징에 대한 관찰, 대자연의 조화의 일부로서의 동물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낙빈왕(駱賓王)이 지은 〈거위〉(詠鵝)는 지금도 중국 어린이들이 일찍 배우는 고전시로 유명하다.

鵝鵝鵝,	거위야, 거위야, 거위야
曲項向天歌.	구부러진 목으로 하늘을 향해 노래하는구나
白毛浮綠水,	하얀 날개는 푸른 물 위에 떠 있고
紅掌撥清波.	붉은 발바닥은 맑은 물결 저어낸다

(《全唐詩》 권79)

이 시는 낙빈왕이 7세 때 지었다고 하는 시로, 먼저 친근하게 거위를 부르고 목이 구부러져 있다는 형상의 특징과 하늘을 향해 잘 우는 특징을 그렸으며, 하얀 날개와 푸른 물, 붉은 발바닥과 맑은 물결의 대비로 거위에 대한 선명한 인상을 신선하게 포착하였다. 사실 제1구의 鵝鵝鵝는 거위가 우는 소리를 의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더욱 깊은 맛을 남긴다.

동물은 목가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때로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보의 〈의로운 송골매의 노래〉(義鵑行)가 그러하다.

陰崖有蒼鷹,	그늘진 벼랑에 '매' 한 마리 살았으니
養子黑柏顛.	검은 측백나무 꼭대기에서 새끼를 길렀었네
白蛇登其巢,	흰 뱀이 그 둥지에 올라가
吞噬恣朝餐.	제멋대로 물고 씹어 아침으로 삼았더라
雄飛遠求食,	수컷은 멀리 먹이 구하러 갔기에
雌者鳴辛酸.	암컷은 목쉬도록 울기만 할 뿐이라
力強不可制,	힘센 뱀을 막을 수 없는지라
黃口無半存.	새끼들이 반도 남지 못하였더라
其父從西歸,	새끼의 아버가 서쪽에서 돌아와
翻身入長煙.	몸을 돌려 먼 구름 속으로 들어갔네
斯須領健鵑,	삼시간에 긴장한 '송골매'를 데리고 와
痛憤寄所宣.	비통과 분노로 호소하였네
斗上振孤影,	갑자기 휘돌며 까마득히 한 점으로 솟구치더니
嗷哮來九天.	구천(九天)에 올라가 힘찬 소리 지르자
修鱗脫遠枝.	비늘 덮인 긴 뱀이 높은 가지에서 떨어지고
巨巖斥老拳.	거대한 대가리가 노련한 발톱에 깨져버렸네
高空得躡躑.	높은 허공에서 헛디디듯 비틀거리고
短草辭蜿蜒.	풀 위에 떨어져 구불거릴 수도 없으랴
折尾能一掉.	끊어진 꼬리가 한 번 꿈틀하더니
飽腸皆已穿.	배부른 창자가 모두 터져버렸네
生雖滅衆雛.	살아서는 비록 새끼들을 없앴지만
死亦垂千年.	죽어서는 악명이 천년 동안 전해지리
物情有報復.	보복은 원래 세상의 이치
快意貴目前.	눈앞에서 실현되니 통쾌하고 귀하여라
茲實鷲鳥最.	송골매는 진실로 맹금 중의 최고
急難心炯然.	남의 어려움을 돕는 그 마음이 드넓어라
功成失所往.	공을 이루어도 가는 곳도 알리지 않으니
用舍何其賢!	오고 감이 얼마나 시원스러운가!
近經瀟水湄.	근간에 홀수 강가를 지나가다가
此事樵夫傳.	나무꾼이 이 일을 전해주었네
飄蕭覺素髮.	성긴 흰 머리카락이 쭈뼛하여
凜欲衝儒冠.	유관(儒冠)을 들어 올리는 듯했네

人生許與分.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허락함은  
 只在顧盼間. 다만 순식간에 결정되는 것  
 聊爲義鵲行. 잠시 이 〈의로운 송골매의 노래〉를 지어  
 用激壯士肝. 장사(壯士)의 마음을 격발하고자 하네

(《全唐詩》 권217)

이 시는 정의로운 송골매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새끼를 잃은 매를 대신하여 송골매가 뱀을 죽여 복수한 이야기를 시화(詩化)하였다. 두보가 758년(47세) 봄, 좌습유로 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며, 율수(瀋水) 강가에서 나무꾼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옮겼다. 말미에서 인간사회의 의사(義士)를 찬양하였지만, 시의 초점은 동물들의 생존과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당시를 열람하다 보면 당시 사람들이 더러 학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기르던 학을 잃어버리고 쓴 〈학을 잃고〉(失鶴)이란 시를 쓴 시인만 해도 백거이(白居易), 이원(李遠), 설능(薛能), 이군옥(李群玉), 한악(韓偓) 등이 있다.<sup>13)</sup> 또 학은 남방에서 많이 나므로 이를 북방으로 부치는 일도 있었다. 백거이도 소주자사를 마치고 낙양으로 가면서 한 쌍의 학을 싣고 갔는데 나중에 배도(裴度)에게 기증하였다. 백거이의 〈배 상공께서 나에게 쌍학을 구한 데 답하며〉(酬裴相公乞予雙鶴)는 이러한 일을 그렸다.

警露聲音好. 이슬에 놀라는 소리가 아름답고  
 冲天相貌殊. 하늘 높이 오르는 모습이 유달라  
 終宜向遼廓. 결국 아득히 높은 곳에 향해야 맞으니  
 不稱在泥塗. 진흙 속에 있는 건 어울리지 않아라  
 白首勞爲伴. 백발이 된 나와 함께 하기 수고로웠더니  
 朱門幸見呼. 대갓집에서 다행히도 너를 부르는구나  
 不知疎野性. 알지 못해라, 너의 그 소탈한 성품으로  
 解愛鳳池無. 궁궐의 봉황지를 좋아할 수 있을지

(《全唐詩》 권448)

13) 이들 시 가운데 백거이의 시가 비교적 이미지와 주제가 선명하다. “失爲庭前雪，飛因海上風。九宵應得侶，三夜不歸籠。聲斷碧雲外，影沈明月。郡齋從此後，誰伴白頭翁。”

위의 시는 제1, 2구에서 학의 울음소리와 나는 모습을 그리고, 제3, 4구와 제7, 8구에서 습성을 그렸다. 제5, 6구는 시인과의 생활을 서술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학은 마치 시인의 또 다른 분신으로 간주할 만큼 친밀한 형상으로, 대체로 가까이에서 보고 지낸 두 마리의 학에 대한 각별한 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편들에서 당시 시인들의 동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만당 시기에 활동한 최각(崔玨)이 원앙을 노래한 〈친구의 '원앙지집'에 화답하며〉(和友人鴛鴦之什)도 원앙의 모습을 잘 그린 명편으로 알려졌다. 제목에 '집(什)'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처음에는 10수였으리라 보이지만 현재 3수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한 수를 보자.

翠鬣紅毛舞夕暉, 비취색 머리털에 붉은 깃털 석양에 춤추는데  
水禽情似此禽稀. 물새 가운데 이처럼 다정한 새도 없다네  
暫分煙島猶回首, 잠시 바위를 두고 나뉘어도 고개를 돌려보고  
只渡寒塘亦并飛. 차가운 연못을 건널 때도 함께 날아가는구나  
映霧盡迷珠殿瓦, 안개 속 희미하게 전각 위의 원앙와로 앉아있고  
逐梭齊上玉人機. 직녀가 짜는 베틀 위 비단 속에 나란히 들어갔네  
採蓮無限蘭橈女, 연밭 가득 탄 목련나무 노 젓는 아가씨들  
笑指中流羨爾歸. 웃으며 가리키다 부러워하며 돌아가네

(《全唐詩》 권591)

위 시는 제1구에서 원앙새의 깃털 색을 묘사하고, 제3, 4구에서 물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실경으로 그리고, 제5, 6구에서는 기물 속에 깃든 원앙의 모습을 형용하였다. 특히 제5, 6구는 원앙이 지닌 특징과 습성을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통해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허실이 어울리고 정취가 있다. 말미에서는 저물녘의 연밭 따는 아가씨들의 관점으로 돌아와 원앙으로 상징되는 행복한 삶에 대한 동경을 그렸다. 최각은 이 시로 인해 '최원앙'(崔鴛鴦)이란 이름을 얻었다.

당대 말기에 정곡(鄭谷) 역시 〈자고새〉(鷓鴣)란 시로 이름을 얻었다.

暖戲煙燕錦翼齊, 따뜻한 풀숲에 놀며 비단 깃털 나란해

品流應得近山鷄. 그 종류는 응당 까투리에 가깝다고 해야 하리  
 雨昏青草湖邊過. 비 내리는 저녁이면 청초호 물가에서 날고  
 花落黃陵廟裏啼. 꽃이 떨어지면 황릉묘 안에 날아와 울어  
 遊子乍聞征袖濕. 나그네는 잠깐 들어도 옷소매 적시고  
 佳人才唱翠眉低. 미인은 노래 부르며 비취빛 아미를 숙인다  
 相呼相喚湘江曲. 상수의 굽이진 곳에서 서로 부르고 답하니  
 苦竹叢深春日西. 참대 우거진 곳에 봄날의 해가 서쪽으로 지는구나

(《全唐詩》 권675)

이 시는 자고새를 제재로 한 영물시로, 첫 2구에서 습성과 형상을 그리고, 제3, 4구에서는 지명을 사용한 풍경 속에 두고 담담히 사경(寫景)으로 처리하였다. 제 5, 6구는 자고새 울음을 듣는 사람에 대해 측면으로 자고새를 묘사하였다. 제8구는 종결로서 마감하였다. 이 시가 당시 많이 알려져 사람들은 정곡을 '정자고'(鄭鷓鴣)라 불렀다.

중국 고전시에서 사물의 외양을 극력 묘사한 때는 제량 시기와 초당 시기로, 영물시가 발전한 때이기도 하다. 중만당 시기에 이러한 시풍이 다시 한 번 나타나면 서 동물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그려낸 시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고전시에서 동물의 외형과 습성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처지에 반영하는 '탁물언지'(托物言志)의 전통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정확하고 개성 있는 묘사의 끝에 자신의 처지나 지향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형상 묘사시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의취나 지향을 기탁한 시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두보(杜甫) 이후에는 동물의 형상화에 주력하면서 비홍 대상시와 형상 묘사 시가 더욱 강하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동물을 더 꿰뚫고 절실하게 표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취나 의도를 기탁하는 것이다. 말을 예로 들면, 두보는 말에 대한 시만도 모두 11수를 지었는데, 〈방 병조 호마〉(房兵曹胡馬)와 〈총마의 노래〉(驄馬行) 등에서는 용맹한 기질에 바람을 딛고 달리려는 정신적 풍모를 그렸고, 〈병든 말〉(病馬)과 〈백마〉(白馬) 등에서는 노년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였다. 이하(李賀)는 연작시 〈마시〉(馬詩) 23수를 지어 말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다. 조당(曹唐)은 〈병든 말〉(病馬)에서 준마의 비참한 모습을 그렸다.

이처럼 전통적인 비홍 대상시는 중당 이후 점점 형상 묘사시의 틀 속에 붙여져 표현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매미에 관한 명편들은 정작 매미 자체 보다는 자신의 청고함 또는 청빈을 매미를 통해 비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세남(虞世南)의 〈매미를 읊다〉(詠蟬)는 “늘어진 갓끈 같은 부리로 맑은 이슬 마시고, 성긴 오동잎 사이로 울림을 내보내는구나”(垂緜飲清露, 流響出疎桐.)라며 그 모습과 습성을 묘사하고, 청고하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 간다며 그 품격을 칭송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낙빈왕(駱賓王)의 〈옥에서 매미를 읊다〉(在獄詠蟬)는 “이슬이 내린 탓에 날아가기 어렵고, 바람이 심한 탓에 울음소리 가라앉아”(露重飛難進, 風多響易沈.)라며 그 침중한 환경을 환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함께 묘사하였다. 이 상은(李商隱)의 〈매미〉(蟬) 역시 “본디 청고한 탓에 배부르기 어려워, 헛되이 수고하며 힘들여 소리 지르는구나”(本以高難飽, 徒勞恨費聲.)라고 하여 역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동물시를 살펴보면 동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나 의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비홍 대상시가 동물과의 개별적인 만남 없이 이지적으로 처리한데 비해, 형상 묘사시는 동물과의 개별적인 접촉에서 자신의 뜻을 감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렇게 동물과의 구체적인 접촉과 만남과 경험에서 시적 공간이 더욱 풍부해졌다.

### (3) 생명 애호시

생명 애호시는 동물의 생존과 생명에 대해 관심을 보인 시이다. 동물은 인간에게 포획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특별한 정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물고기나 가축을 잡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은 수시로 위협받는다. 따라서 고대부터 동물의 생명에 대해 동정하거나 생명의 존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 가운데는 맹수와 같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왕건(王建)이 “사냥꾼의 화살 끝은 기러기를 찾고, 낚시꾼의 장대는 물고기를 구한다”<sup>14)</sup>고 노래했듯이 많은 동물들이 사람의

14) 王建, 〈寄舊山僧〉(《全唐詩》 권300) : “因依老宿發心初, 半學修心半讀書. 雪後每常同席臥, 花時未省兩山居. 獵人箭底求傷雁, 釣戶竿頭乞活魚. 一向風塵取煩惱, 不知衰病日難除.”

살육 앞에 놓여있는 썸이다.

고대에 동물의 생명에 대한 기록으로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맹자》에서 볼 수 있다. 제 선왕(齊宣王)이 종에 피를 칠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두려워 벌벌 떠는 ‘곡속’(穀觶)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데서, 맹자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仁)을 유추해 내었다.<sup>15)</sup> 비슷한 상황은 《안자춘추》(晏子春秋)에도 나온다. 제 경공(齊景公)이 새끼 새를 취하려다 보니 새끼 새가 약한지라 다시 둥지에 넣었는데, 안자가 이를 듣고 바로 경공을 찾아가 성왕의 자질이 있다고 칭송하였다.<sup>16)</sup> 또 《열자》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한단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룻날에 조간자(趙簡子)에게 비둘기를 헌상하자, 조간자가 크게 기뻐하며 후한 상을 내렸다. 객이 그 이유를 묻자 조간자는 “정월 초하루에 방생하면 은혜를 보이는 것이요”라 하였다.<sup>17)</sup> 역시 비슷한 기록이 《회남자》에도 보인다. 전자방(田子方)이 늙어 힘없는 말이 소용없게 되었다고 시장으로 팔려가게 되자 “한창 때는 그 힘을 마구 부리더니, 늙어서는 내버리니 이는 어진 사람이 할 바가 아니다”며 자신의 비단을 내어 그 말을 샀다.<sup>18)</sup>

시에서 동물의 생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조식(曹植)의 〈야전황작행〉(野田黃雀行)으로 보인다. 시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다. “보지 못하였는가, 울타리에서 놀던 참새, 새매를 피하다가 그물에 걸린 것을. 그물 놓은 사람은 참새를 얻어 기뻐하지만, 청년은 참새를 보고 슬퍼한다. 검을 뽑아 그물을 자르니, 참새는 훨훨 날아갈 수 있구나. 훨훨 날아 푸른 하늘에 높이 갔다가, 다시

15) 楊伯峻, 《孟子譯注》〈梁惠王上〉(中華書局, 1962): “王曰: ‘舍之. 吾不忍其觶觶, 若无罪而就死地.’”

16) 吳則虞, 《晏子春秋集釋》 권5(國家圖書館出版社, 2011): 景公探雀觶, 觶弱, 反之. 晏子聞之, 不待時而入見景公. 公汗出惕然, 晏子曰: “君何爲者也?” 公曰: “吾探雀觶, 觶弱, 故反之.” 晏子逡巡北面再拜而賀曰: “吾君有聖王之道矣!” 公曰: “寡人探雀觶, 觶弱, 故反之, 其當聖王之道者何也?” 晏子對曰: “君探雀觶, 觶弱, 反之, 是長幼也. 吾君仁愛, 曾禽獸之加焉, 而況于人乎! 此聖王之道也.”

17) 楊伯峻, 《列子集釋》〈說符〉(中華書局, 1979): 邯鄲之民, 以正月之旦獻鳩于簡子, 簡子大悅, 厚賞之. 客問其故, 簡子曰: “正旦放生, 示有恩也.” 客曰: “民知君之欲放之, 競而捕之, 死者衆矣. 君如欲生之, 不若禁民勿捕. 捕而放之, 恩過不相補矣.” 簡子曰: “然.”

18) 何寧, 《淮南子集釋》〈人間訓〉(中華書局, 1998): 田子方見老馬於道, 喟然有志焉. 以問其御曰: “此何馬也?” 其御曰: “此故公家畜也. 老罷而不爲用, 出而鬻之.” 田子方曰: “少而貪其力, 老而棄其身, 仁者弗爲也.” 束帛以贖之.

내려와 청년에게 고마워한다”(不見籬間雀，見鷓自投羅。羅家得雀喜，少年見雀悲。拔劍捎羅網，黃雀得飛飛。飛飛摩蒼天，來下謝少年.) 이 시에 대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자 쟁탈전에 밀려난 조식이 그의 후원자들이 하나씩 살해당하자 위협에 빠진 친구를 구할 없는 비분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전반부에서 “손에 날카로운 검도 없으면서, 어찌하여 친구는 많이 사귀었는가”(利劍不在掌，結友何須多!)고 탄식하는 장면이 이를 잘 말해준다. 후반부에서 그물에 걸린 참새를 구해주는 청년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 시인의 강렬한 희망을 나타내었다. 후반부는 별도의 작품으로 읽어도 무방하다면 곧 생명 애호시의 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광희(儲光羲)의 〈농가에서 보이는 대로〉(田家即事)는 동물의 생명에 관심을 보인 뛰어난 시이다.

蒲葉日已長，	창포 잎은 날로 자라고
杏花日已滋。	살구꽃도 날마다 무성한데
老農要看此。	늙은 농부가 이를 보고
貴不違天時。	하늘이 내린 때를 놓치지 않으려 하네
迎晨起飯牛，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 먹이고
雙鴛耕東菑。	쌍 멍에로 동쪽 묵정밭을 가니
蚯蚓土中出。	흙속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田鳥隨我飛。	까마귀가 내 뒤로 날아드네
群合亂啄噪。	무리지어 어지러이 쪼아 먹으며
嗷嗷如道飢。	깁깁거리며 배고프다 말하는 듯해라
我心多惻隱。	내 마음이 한껏 측은하여
願此兩傷悲。	까마귀와 지렁이를 함께 슬피하여라
撥食與田鳥。	먹이를 흘뿌려 까마귀에게 주다가
日暮空筐歸。	저녁에는 빈 광주리 들고 돌아오네
親戚更相諍。	식구들과 친척들이 나를 향해 꾸짖어도
我心終不移。	내 마음은 끝내 옳다 여기노라

(《全唐詩》 권137)

봄날 밭을 갈다가 일어난 일을 소재로 쓴 시로, 까마귀들이 지렁이를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에 까마귀도 살리고 지렁이도 살리기 위해 뿌려야 할 씨앗을 모두 먹이로 주고 있다. 생명에 대한 시인의 무한한 애정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농부와 대조



되는 가족과 친척의 실용적인 시각도 끼어 넣어 입체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적인 묘사에 농가의 일과 작자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여실히 하다.

동물시 가운데는 동물에 대한 보호를 인간의 태도와 대비시켜 표현한 시들이 특히 뛰어나다. 아래 몇 편을 예로 들어본다.

繞池閑步看魚遊. 연못을 한가히 맴돌며 노니는 물고기 바라보니  
正值兒童弄釣舟. 마침 아이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구나  
一種愛魚心各異. 물고기 사랑함은 같으나 그 뜻은 서로 달라  
我來施食爾垂鉤. 나는 먹이를 주지만 너희들은 낚시 바늘을 드리누나  
—백거이(白居易) 〈노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觀遊魚)

已落雙雕血尙新. 수리 한 쌍 떨어져 피가 아직 생생한데  
鳴鞭走馬又翻身. 채찍 울리고 말 달리며 몸을 뒤집는구나  
憑君莫射南來雁. 그대에게 바라노니 남쪽에서 오는 기러기 쏘지 말게나  
恐有家書寄遠人. 아마도 고향 편지 먼 곳으로 가져가나니  
—두목(杜牧) 〈사냥꾼에게〉(贈獵騎)

萬峰圍繞一峰深. 수많은 봉우리가 둘러싼 봉우리 아래  
向此長修苦行心. 오래도록 수행하며 마음을 닦았지  
自掃雪中歸鹿迹. 눈 위의 사슴 발자국 쓸어내는 것은  
天明恐被獵人尋. 날 밝으면 사냥꾼이 쫓아갈까 두려워서라네  
—육구몽(陸龜蒙) 〈두타승〉(頭陀僧)

위 세 편의 시는 각각 물고기, 기러기, 사슴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생존을 염려한 것으로, 비교적 온화한 어투에 깊은 생각을 담고 있다.

동물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유가의 인의(仁義)와 도가의 양생(養生)과 더불어 남북조시기에 부처의 본생담(本生談) 등 불경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가운데는 방생(放生)에 대한 시가 상당 수 있다. 유종원(柳宗元)의 〈자고새를 놓아주며〉(放鷓鴣詞)도 자고새의 생명을 두고 사색한 시이다.

楚越有鳥甘且腴. 초 지방에 맛있고 기름진 새가 있으니

嘲嘲自鳴爲鷓鴣. 자자자자 스스로 울며 제 이름을 부르네  
 狗媒得食不復慮. 후림새를 따라와 걱정 없이 모이 쪼을 때  
 機械潛發羅罝罟. 쇠뇌가 날아가고 그물이 덮치네  
 羽毛摧折觸籠籬. 깃털이 꺾이고 어리에 갇힌 다음  
 煙火煽赫驚庖廚.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주방 앞에서 놀라네  
 鼎前芍藥調五味. 솥에는 오미에 맞추어 작약이 끓고  
 膳夫攘腕左右視. 주방장은 팔을 걷고 이리저리 둘러보네  
 齊王不忍殺觶牛. 제 선왕(齊宣王)도 차마 벌벌 떠는 소를 보지 못하고  
 簡子亦放邯鄲鳩. 조간자(趙簡子)도 한단의 비둘기를 방생하였는지  
 二子得意猶念此. 두 사람은 높은 신분이면서도 이같이 하였으니  
 況我萬里爲孤囚! 하물며 만리 멀리 갇힌 나에게 그런 마음 없으랴!  
 破籠展翅當遠去. 조롱을 부수었으니 날개 펴고 멀리 날아가  
 同類相呼莫相顧. 친구 새들이 불러도 돌아보지 말게나

(《全唐詩》 권353)

위 시는 붙잡혀 죽게 된 자고새를 살려주는 일을 빌어, 험악한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었다. 자고새를 잡을 때 후림새를 이용하는 일화는 불교의 《본생경》(本生經)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일화를 이용하여 남의 말에 쉽게 유혹되지 말기를 함께 경계하였다. 학자들은 영정 개혁에 참가하여 편집된 유종원이 스스로 경계하는 것으로 보았지만,<sup>19)</sup> 그러한 관점 없이 이 시를 방생의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시에는 조간자의 전고가 나오는데, 《열자》〈설부〉를 찾아보면 조간자의 방생에 대해 조간자의 객은 방생은 먼저 동물을 포획하게 하므로 오히려 방생하지 말 것을 주장했고 조간자가 이에 응낙하였다. 객의 논리가 정확하지만 방생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서 역대로 방생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방생과 관련된 시를 더 찾아보면 송지문(宋之問)의 〈放白鷗篇〉, 두공(竇鞏)의 〈放魚武昌作〉, 이신(李紳)의 〈憶放鶴〉, 노동(盧仝)의 〈觀放魚歌〉, 백거이(白居易)의 〈放魚〉와 〈放旅雁〉, 이군옥(李群玉)의 〈放魚〉, 제기(齊己)의 〈辭主人絕句四首〉와 〈放鷺鷥〉, 여온(呂溫)의 〈道州北池放鵝〉, 육구몽(陸龜蒙)의 〈藥魚〉, 방간

19) 예컨대 沈德潛은 《唐詩別裁集》(上海古籍出版社, 2008)에서 “왕숙문이 불러 화를 입은 일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暗指王叔文招之及罹禍事.)고 보았다.

(方干)의 〈贈江上老人〉, 이순현(李舜弦)의 〈釣魚不得〉, 허혼(許渾)의 〈放猿〉, 풍도(馮道)의 〈放魚書所鑰戶〉와 〈放魚書所鑰戶〉, 사공도(司空圖)의 〈放龜二首〉와 〈上元放二雉〉, 옹도(雍陶)의 〈放鶴〉, 최도(崔塗)의 〈放鷓鴣〉, 이중(李中)의 〈放鷺鷥〉, 증마기(曾麻幾)의 〈放猿〉, 길사로(吉師老)의 〈放猿〉, 역사(易思)의 〈郡城放猿獻衛使君〉 등이 있다.

생명이 생명을 먹는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의 동물을 살리는 것은 다른 동물을 죽이는 상황을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의 복잡성을 잘 지적한 것으로 두보(杜甫)의 〈묶인 닭의 노래〉(縛鷄行)가 있다.

小奴縛鷄向市賣, 어린 종이 시장에 팔려고 닭을 묶으니  
 鷄被縛急相喧爭, 묶인 닭이 다급히 울어대며 푸드득거리네  
 家中厭鷄食蟲蟻, 식구들은 닭이 벌레 쪼아 먹는다고 팔려고 하나  
 不知鷄賣還遭烹, 팔린 닭은 삶기어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네  
 蟲鷄於人何厚薄? 어찌하여 벌레는 살리면서 닭은 죽이는가 싶어  
 吾叱奴人解其縛, 나는 종을 꾸짖어 묶인 닭을 풀어주게 하였네  
 鷄蟲得失無了時, 닭과 벌레처럼 득과 실을 다투는 일은 수없이 많으니  
 注目寒江倚山閣, 서각에 기대어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노라

(《全唐詩》 권221)

위 시는 닭이 묶여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지은 것으로, 닭과 벌레의 상대적 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움을 사색하였다. 이를 하나의 비유로 발전시켜 세상에는 그러한 일이 많아 ‘끝날 때가 없다’(無了時)고 하였다. 송대 진사도(陳師道)는 닭과 벌레의 상대적 득실을 잊고 큰 도리에 뜻을 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광경과 비유가 선명하며 이취(理趣)가 있다.

생명 애호시는 유가의 호생(好生)과 불교의 계살(戒殺) 정신이 맞물려 당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여기에는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풍자개(豐子愷)가 《호생화집》(護生畫集)으로 이러한 시들을 모으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sup>20)</sup> 이들 시를 보면 불교적 교리에 따라 설법

한 시보다는 자신의 생활과 체험 속에서 우리나라는 시들이 훨씬 아름답고 공감력이 크다.

#### (4) 동물 교감시

동물 교감시는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의 교감을 그린 시이다. 사람과 동물의 사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뜻이 전해지고 서로를 의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제재로 하는 것은 시보다는 설화 속에 훨씬 풍부하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해객狎鷗’(海客狎鷗)일 것이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갈매기를 좋아하였는데 매일 아침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와 놀면 백 마리 이상이 날아들었다. 하루는 그 부친이 자신이 가지고 놀게 잡아오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그 사람이 기심(機心)을 가지고 다가가니 갈매기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sup>21)</sup> 비록 철학적인 뜻을 전하기 위해 지어낸 혐의가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이상적인 화목과 어울림을 형상화하였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교감은 보통 사람의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동물의 동물에 대한 애정으로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한비자》에 나오는 진서파(秦西巴)가 사슴을 놓아준 일이 그러하다. 노나라 맹손(孟孫)이 사냥에 나가 새끼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진서파(秦西巴)를 보내 수레에 싣고 오게 하였다. 진서파가 싣고 오려고 하자 어미 사슴이 울면서 따라왔다. 이에 진서파가 차마 데려오지 못하고 어미에게 돌려보냈다.<sup>22)</sup>

유사한 이야기는 여러 책에서 등장하며 개 또는 소가 주인의 위기를 도와주는

20) 豐子愷, 《護生畫集》(龍門書局, 2009). 원래 이 책은 제1집(1929년), 제2집(1940년), 제3집(1950년), 제4집(1961년), 제5집(1965년), 제6집(1973년)으로 6차례에 걸쳐 출판되었으며, 모두 450쪽의 그림을 중심으로 간략한 글이 덧붙여지는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21) 楊伯峻, 《列子集釋》〈黃帝〉(中華書局, 1979)

22) 王先慎, 《韓非子集解》〈說林〉(中華書局, 1998): 孟孫獵得麋, 使秦西巴持之歸, 其母隨之而啼. 秦西巴弗忍而與之. 孟孫歸, 至而求麋. 答曰: “余弗忍而與其母.” 孟孫大怒, 逐之. 居三月, 復召以爲其子傅. 其御曰: “曩將罪之, 今召以爲子傅, 何也?” 孟孫曰: “夫不忍麋, 又且忍吾子乎?” 故曰: “巧詐不如拙誠.” 樂羊以有功見疑, 秦西巴以有罪益信.

이야기도 여기에 속한다. 또 인도에서 전래한 불경에는 동물에 대한 교감 이야기가 많으며, 부처의 본생담에도 동물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낸 이야기가 등장한다.<sup>23)</sup>

당대 설용약(薛用弱)이 편집한 《집이기》(集異記)에는 당 중종 때 간의대부를 지낸 유초(柳超)가 영남으로 폄적 갈 때 일어난 일을 적고 있다. 당시 개 한 마리와 시종 둘이 따라갔는데, 유초의 물건을 탐낸 두 시종이 짜고서 유초가 먹을 음식에 독을 넣었다. 음식을 들이기 전에 개가 두 시종을 물어 죽였다.<sup>24)</sup>

사람과 동물과의 만남을 인상 깊게 그린 시는 왕인유(王仁裕)의 〈원숭이를 놓아주며〉(放猿)에서 찾을 수 있다.

放爾丁寧復故林. 너를 예 살던 숲으로 보내며 당부하니  
 舊來行處好追尋. 전에 태어나 살던 곳을 잘 찾아가거라  
 月明巫峽堪憐靜. 달 밝은 무협에선 고요함을 좋아하고  
 路隔巴山莫厭深. 길 건너 파산에는 계곡이 깊어도 싫어하지 말아라  
 棲宿免勞青嶂夢. 깃들여 자면서 푸른 산을 꿈에 그리지 않아도 되고  
 躋攀應愜白雲心. 디디고 오르면서 흰 구름 같은 마음이 즐거우리라  
 三秋松子纍纍熟. 가을 내내 솔방울이 주렁주렁 열리면  
 任抱高枝採不禁. 마음껏 높은 가지에 올라 따내어도 막을 자 없으리

(《全唐詩》 권736)

이 시는 《태평광기》 권446에 실린 《왕씨견문》(王氏見聞)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시작(詩作)의 동기가 서문에 적혀 있다. “왕인유가 한중에서 임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내게 주었다. 보기에 영리하고 활발해서 데려다 기르면서 이름을 ‘야빈’(野賓)이라 하였다. 일 년이 지나 점점 자라다보니 도처에 뛰어다녀 상당히 귀찮게 되었다. 이에 목에 붉은 명주를 걸어 시를 한 수 써주고는 산속으로 보냈다.”<sup>25)</sup> 그러므로 위 시는 시인이 기르던 원숭이를 놓아주

23) 예컨대 《六度集經》에는 새끼를 뱀 어미 사슴을 대신하여 죽으려는 사슴왕 이야기가 있으며, 《佛說鹿母經》에는 자신이 희생하여 두 새끼를 키우려는 어미 사슴의 이야기가 있다.

24) 薛用弱, 《集異記》(中華書局, 1980) : 唐中宗時, 諫議大夫柳超得罪謫嶺外, 以一犬二僕自隨. 二僕欲圖其資裝, 謀奉毒藥於諫議食. 未進, 犬咬死二僕. 後數日, 詔赦還京.

25) 李昉 等編, 《太平廣記》 권446(中華書局, 1961) : “仁裕從事漢中, 有獻小猿者, 憐其點慧, 育之.

며 써서 목에 걸어준 시이다. 야생의 원숭이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지극하며, 이는 곧 시인이 청산에서 누리고 싶은 소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 후 왕인유는 ‘야빈’을 다시 한 번 만나게 된다. 이 경험을 <놓아준 원숭이를 만나고 지음> (遇所放猿作)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峯豕祠前漢水濱, 파총산 사당 앞 한수의 강가  
 飲猿連臂下嶙峋, 원숭이들 물 마시려 팔 붙들고 절벽에서 내려와  
 漸來子細窺行客, 점점 다가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세히 엿보는데  
 認得依稀是野賓, 멀찍이 바라보니 그 모습이 ‘야빈’인 줄 알겠어라  
 月宿縱勞羈縲夢, 달밤에 잠자면서 고삐에 묶였던 꿈에서 벗어났고  
 松餐非復稻粱身, 솔방울 먹으니 이제는 곡식 먹는 몸이 아니어라  
 數聲腸斷和雲叫, 몇 마디 애 끊는 울음 구름 속으로 올라가니  
 識是前時舊主人, 예전에 길러준 주인임을 알아보았으리라

(《全唐詩》 권736)

이 시 역시 서문을 붙였는데 다음과 같다. “왕인유가 관직을 그만 두고 촉 지방으로 들어갈 때, 한강 강가의 파총산 사당 앞에서 큰 원숭이 한 마리를 보았는데 무리를 떠나 내 쪽으로 왔다. 길가의 오래된 나무 사이에서 몸을 거꾸로 매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에는 붉은 명주가 뚜렷이 걸려 있어 나는 ‘야빈! 야빈!’이라며 크게 불렀다. 원숭이는 그때마다 하나하나 울면서 마치 나의 부름에 대답하는 듯했다. 나는 말을 세우고 한동안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슬퍼졌다. 이에 다시 시 한 수를 쓴다.”<sup>26)</sup> 파총산은 한수의 발원지이므로 예전에 놓아준 ‘야빈’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시에서는 만날 때의 장소와 상황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전개하였다. 다시 만난 반가운 장면을 자세히 그렸고, 야생으로 돌아간 모습을 애정 있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시에서는 이러한 선명하고 강렬한 경험보다는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지내는 생

名曰野賓, 經年壯大, 跳躑頗爲患, 繫紅綃於頸, 題詩送之.”

26) 李昉 等編, 《太平廣記》 권446(中華書局, 1961): “仁裕罷職入蜀, 行次漢江壩峯豕廟前, 見一巨猿舍群而前, 於道畔古木間垂身下顧, 紅綃宛在, 以野賓呼之, 聲聲如應, 立馬移時, 不覺測然, 遂繼題一篇云.”

활을 목가적으로 그린 경우가 많다. 저광희(儲光羲)의 〈목동사〉(牧童詞)가 그러하다.

不言牧田遠.	방목지가 멀어도 불평하지 않고
不道牧陂深.	소택지가 깊어도 상관하지 않으며
所念牛馴擾.	오로지 소들이 잘 크기만을 바라는
不亂牧童心.	목동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네
圓笠覆我首.	둥근 삿갓으로 내 머리를 덮고
長蓑披我襟.	긴 도롱이로 내 소매를 덮으니
方將憂暑雨.	조만간 더위와 비가 올까 걱정하고
亦以懼寒陰.	추위와 그늘을 꺼려 한하네
大牛隱層坂.	어미 소는 비탈의 후미진 곳에 숨고
小牛穿近林.	새끼소는 근처 숲속을 지나가며
同類相鼓舞.	소들이 저들끼리 쫓고 따르니
觸物成謳吟.	목동은 이를 보고 절로 노래하여라
取樂須臾間.	즐거움이란 뿌리 없이 금방 생기는 것이니
寧問聲與音?	어찌 가락이 있느냐고 물어보랴?

(《全唐詩》 권136)

위 시는 민요풍의 소박한 언어로 목동과 소 사이의 무구한 정감과 정취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시는 《시경》 〈무양〉(無羊)에서 그 기원을 볼 수 있다. 소를 돌보는 목동의 마음이 절실하며, 소도 이를 아는 듯 천진하고 자유롭다. 말 2구를 보면 시인은 목동과 소를 빌려 도가의 이상적 경지를 표현하고자 한 듯하다. 같은 제목의 〈목동사〉를 지은 시인으로는 장적(張籍)과 이섭(李涉)이 있는데 비슷한 의취를 표현하였다.

노륜(盧綸) 역시 〈산중 절구〉(山中一絕)에서 동물과 짝하며 자유로이 살아가는 경지를 그렸다.

飢食松花渴飲泉.	배고프면 송화 먹고 목마르면 샘물 마셔
偶從山後到山前.	어쩌다가 산 뒤에서 산 앞으로 오는구나
陽坡軟草厚如織.	양지바른 언덕에 풀들은 직물처럼 두터워
因與鹿麕相伴眠.	사슴들과 더불어 짝하여 잠을 자네

동물과 짝하며 살아가는 일은 역사서에도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진서》(晉書) 〈은일전〉에는 도담(陶淡)이 장사(長沙) 임상산(臨湘山)에서 여막을 짓고 살 때 흰 사슴을 기르며 함께 살았다고 한다.<sup>27)</sup> 이는 사람과 동물은 대자연 속에서 같은 살아가는 동거자이며, 그러한 삶이 본성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동물 교감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소통을 전제하며, 이때 동물이 사람을 향해 감응할 때 높고 뚜렷한 교감이 생긴다. 효자형 설화에 나오는 '지성감천'의 이야기도 하늘에서 잉어가 떨어지고 눈 속에서 죽순이 자라는 데서 지극한 정성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반대로 사람이 동물에 대해 감응할 때는 앞에서 보인 형상 묘사시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설화나 이야기는 진지적 화자의 관점에서 사람과 동물을 모두 바라보며 플롯을 전개하므로 동물의 감응을 나타내기가 쉽지만, 시는 일반적으로 시적 화자의 서정이 위주가 되므로 비홍 대상이나 형상 묘사 시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물 교감시가 적게 나타난다.

### 3. 마무리글

오늘날 전지구적 생태계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브루셀라, 멸종 등의 문제는 인간으로 전이되거나 병의 유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동물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 들어있음을 일깨우며, 인간보다 먼저 앓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대인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살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특히 유가의 호생(好生), 도가의 양생(養生), 불가의 계살(戒殺)은 비록 주안점은 다르지만 그 뜻은 일치하는 점이 많아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적 의미가 크다고 보겠다.

27) 房玄齡, 《晉書》〈隱逸傳〉(中華書局, 1995): “於長沙臨湘山中結廬居之, 養一白鹿以自偶.”



중국 고전시 가운데 영물시라는 장르만으로는 오늘날의 관점을 개진하기 어려우므로 동물 관련시를 모두 ‘동물시’라는 소장르에 포함시키고, 다시 네 가지 하위 장르를 만들어 보았다. 본고에서 정리한 비홍 대상시, 형상 묘사시, 생명 애호시, 동물 교감시 등 네 가지 유형은 동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 나누었다. 비홍 대상시와 형상 묘사시는 일차적으로 동물 자체에 집중한 것이며, 생명 애호시와 동물 교감시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경우이다. 나아가 비홍 대상시와 형상 묘사시도 보편성과 개별성, 이지적 처리와 감성적 수용의 관점에서 구별이 된다. 또 생명 애호시와 동물 교감시는 사람의 관심이 생명에 집중하는 경우와 사람보다 동물의 감응에 치중한 것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엄밀한 과학적 분류는 아니지만 중국 동물시의 특성에 비교적 적합한 분류로 보인다. 그 결과 ‘동물시’ 속에는 전통적인 분류로 보았을 때 영물시는 물론 영회시, 산수시, 감우시, 풍유시, 송별시, 증답시, 기려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물시의 분류는 당대 시인들이 동물을 어떻게 이해했고 대했는지 전체적인 범주를 제공하여, 고대 시인들이 동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물시 가운데 비홍 대상시가 가장 많은 점은 사람의 정감과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다량의 동물을 빌려와 사용함으로써 동물을 가까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지만, 동물에 대한 관심을 유형화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경험을 생생한 표현으로 기록하는 형상 묘사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당대 이후에는 점차 생동적인 시편들이 얼마간 나타났다. 이러한 면은 중당 이후 시의 제재가 일상화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 주위의 동물이 점점 음영의 대상으로 확장되는 궤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생명 애호시는 비록 유가와 불가에서 생명에 대한 보편성과 인애의 강조에 따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철학적 또는 종교적 관점이 반영된 시보다는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시편들이 훨씬 생생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 동물 교감시는 인간과 동물의 화해로운 삶을 노래한 시로 이상적인 사회의 투영이거나 개별적인 동물과의 교감일 수가 있다.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삶에 대해 시

보다는 동물과의 개별적인 교감을 기록한 시가 훨씬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의 관련성이 강한 제3 유형과 제4 유형의 시들이 생태시로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 이들에 대해 유형별로 접근하여 그 정신적 의의와 미학적 특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날 고전 문학 속의 동물시는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 〈參考文獻〉

- 彭定求 等編, 《全唐詩》, 中華書局, 1992.  
沈德潛, 《唐詩別裁集》, 上海古籍出版社, 2008.  
李昉 等編, 《文苑英華》, 中華書局, 1966.  
李昉 等編, 《太平廣記》, 中華書局, 1961.  
王堯衢, 《唐詩合解箋注》, 河北大學出版社, 2000.  
潘百齊 編, 《全唐詩精華分類感賞集成》, 河海大學出版社, 1989.  
朱熹, 《詩集傳》, 中華書局, 1958.  
朱熹, 《楚辭集注》, 江蘇廣陵古籍出版社, 1990.  
項楚, 《寒山詩注》, 中華書局, 2000.  
楊伯峻, 《論語譯注》, 中華書局, 1980.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 1962.  
王叔岷, 《莊子校詮》, 中華書局, 2007.  
吳則虞, 《晏子春秋集釋》, 國家圖書館出版社, 2011.  
楊伯峻, 《列子集釋》, 中華書局, 1979.  
王先慎, 《韓非子集解》, 中華書局, 1998.  
何寧, 《淮南子集釋》, 中華書局, 1998.  
房玄齡, 《晉書》, 中華書局, 1995.  
李延壽, 《南史》, 中華書局, 1997.  
薛用弱, 《集異記》, 中華書局, 1980.  
趙沛霖, 《興的源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廖國棟, 《魏晉詠物賦研究》, 文史哲出版社, 1990.

豐子愷, 《護生畫集》, 龍門書局, 2009.

### 《中文提要》

在《全唐诗》的众多诗篇当中, 处处有吟咏动物的作品。本文从生态诗学的观点来考察唐人如何对待动物, 又如何理解人和动物之间的关系等问题。虽然宋初《文苑英华》编了三卷一百七十八首的咏动物诗, 给我们动物诗的大体轮廓, 但是要找到现在意义上的动物观念, 我们不得不考虑新的分类方法。本文抛弃传统的咏物诗范畴, 而尝试采用新的分类方法。首先动物诗分为两类: 一类是以动物为客观对象来描写的诗, 还有一类是着眼人和动物的关系的诗。这两类各有两种的诗歌类型, 一共导出四个类型。前者有主要描写动物的形状和习性的‘吟咏动物诗’(第二类型)和借动物来比喻作者情志的‘比兴对像诗’(第一类型)。后者有着重于动物生命的‘爱护生命诗’(第三类型)和歌唱人与动物之间的亲和的‘动物交感诗’(第四类型)。《诗经》以来诗人借用动物来表达自己的情感和意图, 形成了中国古典诗的主导表现方法之一, 诗人“多识於鸟兽草木之名。”在这种诗歌传统下, 诗人更注意到动物的外貌和习性, 得到有关动物的知识。但是在这种传统的支配下, 诗人会受到反面效果, 即把关心动物的具体兴趣和生动的经验都归结为比兴观念化。中唐以後, 诗的题材逐渐扩大, 动物诗也增加, 诗人‘吟咏动物诗’也增加了。儒家的‘好生’、道家的‘养生’、佛家的‘戒杀’等思想影响了‘爱护生命诗’, 反映生活具体感受的名篇经常出现。‘动物交感诗’一般是人和动物和谐相处的牧歌为主的作品占多数。从生态诗学的观点看, 第三类型和第四类型的作品是更有现代意义的。

**關鍵詞**: 动物诗 生态诗学 吟咏动物诗 比兴对像诗 爱护生命诗 动物交感诗

이 논문은 2012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